

# 대구 투어

## : 98-99년도 동기총재단 모임을 다녀와서



前총재 이승우  
(1998-99년도, 서울남대문RC)

오래전에 날을 잡아 동기 총재(1998-99년도) 모임을 대구서 갖기로 했다. 머리로 식힐 겸 이번에는 꼭 참석해야겠다 싶어 집사람도 동반해서 동기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웬 '콩레이' 태풍의 내습의 타이밍이 묘하게 엮이게 되어 걱정이 되었다. 더욱이 회를 이끄는 대구 총재(여동연 변호사)측은 이모임의 주선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주요 일정을 대구 시내 투어로 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대구의 변한 모습을 보겠다 싶어 기대가 컸다. 왜냐하면 나는 중 고교를 그곳에서 나왔으니 궁금한 점도 많은 처지였다. 기대반 걱정반 대구에 도착하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동기 총재 만남은 큰 기쁨이었다. 세월은 갔어도 모두 건강은 좋아 보였다.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데도 기어이 애써 참석한 동기도 있었다. 그래서 만남은 더 큰 기쁨이 되었다. 요식적인 회의와 식사 그리고 술잔을 나누면서 만남의 회포를 풀었다.

우리 동기 총재 여러분은 임기 기간이 IMF 체제때였으니까 모두 같은 고생을 했으며 연로층과 젊은층이 섞여 있어서 서로 이끌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 격의 없는 동지로서의 우정으로 뭉쳐져 있다. 술을 잘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잘 못해도 분위기를 잘 살려나가는 한수 높은 인격체의 모임이기도 하다. 그리고 풍류가 있다. 술을 통음을 해도 절대 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도 각 회원 부인의 이름을 빠짐없이 외워 읊으며 각기 노래의 18번을 부르게 하여 재회의 진짜맛을 내게 한다. 그리고 난뒤 헤어지면 또 그리워진다.

대구 시내 투어 - 나는 그저 시내 투어인줄 알고 주마간산하면서 편히 시간을 즐기려나 생각했는데, 일정이 아주 새롭고 생각지 못한 관광일정이어서 얼른 감을 잡지 못했는데...

'TheArc'(디아크:The Architecture of River Culture 물문화의 건축물)라는 낙동강 고령 강정보의 건축조형물을 보고 놀랐다. 이게 무엇인가 싶었다. 하늘에서 비행선이 착지한 것 같기도 한 날씬한 건축물, 그것도 빗속에서 멀리 보니 이진 우주비행선 같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형상의 큰 물체가 금방 하늘로 뛰어날 것 같은 자세이다. 중국 황하의 등용문이 생각났다.



황하의 상류에는 용문이란 대협곡이 있는데 여기는 하도 급류여서 물고기도 감히 역류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만일 여기를 뛰어날 아 용문을 넘는다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생각났다. The Arc 자체가 바로 그 어변성룡(魚變成龍)을 실제 보는 것 같았다. 이는 약리도(躍鯉圖) 바로 그것이다. 잉어가 등용문을 뛰어넘는 그림이다.

이는 이 지방 사람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 겨레가 도약하여 세계 정상으로 가야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동이었다. 비는 와도 좋았다. 용은 어차피 비구름을 타고 등천하는 것이니까!

마음속에 남모르는 떨림과 자극을 느껴짐은 웬일일까?

그다음은 사문진이다. 옛날의 물자이동은 주로 강을 통해서이다. 내륙깊이 세곡선(稅穀船) 내왕할때도 이곳 지방은 모두 낙동강을 통해서다.

대구에 피아노 악기가 처음 들여진 것도 이곳을 통해서 운반되었다는 이야기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해서 이곳 사문진 광장에서 피아노 100대를 놓고 큰 연주회를 열었다는 이야기다. 정말 대단한 발상이 아닌가? 운집한 관객 앞에 강변에서 최상급 연주자들의 피아노의 향연을 베푼다. 그리 큰 이벤트는 잘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금호강과 낙동강이 마주치는 곳에 모래톱이 크게 생겨 모래문의나루-사문진(沙門津).

옛날의 주점과 노리터가 재현되어 있고 우리 일행은 원래 이곳에서 점심도하고 선유도 할 계획이었으나 비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취소되었다.

다음 차례의 투어는 마비정과 벽화이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무슨 전설일까 싶었다. 옛날 어느 장수가 철리마가 있다 해서 화살과 속도시합을 시켰더니 이 말이 뒤처지니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했다는 슬픈 이야기다. 숫말을 위한 암말의 희생의 경위를 뒤늦게 알고 장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 암말의 뜻을 기리는 마비정(馬飛亭)을 지었다는 이야기다. 그곳 길가에 담벽이 있는데 어느 화가가 해마다 다른 그림을 그려놓아 사람들의 관심을 늘 끄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 화원은 신라 어느 왕이 산 꼭지에서 꽃을 보았다는 전설에서 화원(花園)이란 지명을 얻었다는 이야기. 이곳에는 문익점 후손의 남평문씨의 세거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 출신인 문태갑(서울신문사장, 국회의원) 문희갑(대구초대민선시장) 이 두 분은 고교 동문이며 나와는 선 후배 사이이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동네 안을 다 살펴



봤을텐데 먼빛으로나마 200년 세거지를 보며 기억난 일이 생각났다. 문태갑 선배가 어느 사석에서 자기는 집안의 전해오는 서책(약 2만권)을 보존하기 위해 낙향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가문에 보존되어 온 고문집, 전적, 당시 입수하기 어려웠던 중국서책 등을 보존하는 것은 한 가문으로서는 아주 큰 일이라 할 수 있다.

날씨만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오히려 태풍에 실려온 비구름 때문에 The Arc가 비상하는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어서 보상을 받았다싶다. 지역관광 개발 투자는 대단히 중요한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 하면서 장래 먹거리를 걱정한다. 이런 전설과 창의적인 발상 등을 근거하여 새로운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야 말로 장차의 우리의 과제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본다. 이는 우리를 더 빛내고 어두운 곳을 밝게 점묘(點描)하여 세계에 내보이며 우리 자신은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내어 구경하도록 하면 그 산업 수입이 크게 나라를 살찌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이상의 투어는 편리한데만 가본 것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갖고 여러 곳에 여유롭게 머물면서 '쉼'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겠나 싶다.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전설과 문혀온 역사 이야기 등이 아직 많이 사장되어 있지 않나싶다. 글로벌 시대에 어디라도 내놓을 수 있는 소재를 잘 따담아서 멋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을 돈을 많이 들어서라도 해내 놓아야 한다는 책무감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싶다. 어느 것도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너무 오래 끌어서 미개한 상태로 두는 것은 또한 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앞으로 4만불, 5만불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 임으로...

이번에 잠시 다녀온 대구지방 투어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고, 역점으로 지역관광문화 건설에 힘쓴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머리가 숙여진다.

끝으로 우중에 열일 제쳐놓고 우리 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대구총재 여동영 님과 아름다운 부인 안동영 여사 두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일행을 대신한 인사로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



## 국제로타리 3650지구 클럽 봉사자금 송금 및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86호(2010.3.31)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로타리 3650지구에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필요 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 100분의 30
- ◆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손금 산입한도액
  -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 100분의 10

**봉사활동 기금, 3650지구 송금계좌 :**  
**KEB하나은행 630-008116-430 (사)국제로타리3650지구**

클럽 자체에서 주관하는 봉사 사업에 회원이 기부금을 내는 경우에는 일단 지구로 기부금을 송금한 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면 개인별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클럽 회장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지구에서 재송금할 것이며, 봉사활동이 완료 되면 봉사한 내용과 영수증을 지구로 보내 주십시오.

•문의: 지구사무국 02-707-3650



### ◆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양식(예) ◆

클럽명:

기부자(또는 기부 단체명)			금 액	비 고 (봉사활동 내용)	재송금 계좌번호
성 명 (단체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2018. . . . .

클럽 봉사자금의 송금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합니다.

클럽 회장 \_\_\_\_\_ 서명